

KBSA 회장 도전장 이순철 위원 “군림? 발로 뛰며 희생해야 한다”

12일 선거 앞두고 ‘소통’ 내세우며 출사표
“경기인 출신 장점 살려 현장 의견 들을 것”



이순철 SBS해설위원

제24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순철 SBS 해설위원(60)은 “발로 뛰겠다”는 약속부터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프로무대에서 선수와 코치, 감독을 모두 경험한 데다 해설 경력까지 지녔다. 경기인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추어 시절 청소년대표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 입단한 1985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커리어를 시작했다.

1998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은퇴한 뒤에는 LG 트윈스 감독, 히어로즈 및 KIA 수석코치, 2015년 WBSC(세계 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다. 이 예비후보의 아들 이성곤(29)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고 있다. 그가 “나는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했다. 10번 타자의 마음도 안다”며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 팬, 미디어 등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화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무엇보다 김용웅 전 회장이 어렵게 정상화한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새 회장의 가장 큰 임무다. 김 전 회장이 수장에 오른 2016년 11월 당시 협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전신인 대한야구협회가 극심한 내용 속에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2017년 1월 “김 회장이 수장을 맡은 뒤 협회 운영이 정상화됐다”며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의결했고, 지금까지는 큰 잡음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순철 예비후보의 책임이 큰 이유도 그래서다. 그는 4일 전화통화에서 “김용웅 전 회장님께서 관리단체였던 협회를 안정화했다”며 “안정된 부분은 유지하면서 고교와 대학야구 현장의 애로사항과 사회인야구 운동장 부족 문제 등을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결해 해결해야 한다. 당연히 야구와 소프트볼의 인프라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엘리트는 물론 동호인과 소프트볼도 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실업야구 창단과 디비전 리그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심판 처우 개선 ▲중앙대회 창설, 찾아가는 야구클리닉 등을 통한 동호인야구 활성화 ▲교육 서비스 강화를 통한 클린베이스볼 실현 ▲현장과 소통이 행정으로 이어지는 공정한 야구 운영 ▲드래프트제도 개선 등을 통한 대학야구 부흥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아마추어야구 홍보 및 관심도 제고 등 7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발로 뛰며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들겠다. 희생해야 한다”며 “경기인 출신으로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할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장점들을 활용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는 12일 열린다. 후보자 등록은 5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다. 등록을 마치면 7일부터 1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예비후보와 함께 나진균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선 기자 posterboy@donga.com

타선·선발진 업그레이드 마친 삼성, 남은 과제는 불펜 살리기

‘불펜 컨디셔닝’에 시즌 사활을 거는 삼성

지난시즌 막강 불펜 7월 후 와르르
허삼영 감독 “체력 한계 일찍 왔다”
비시즌 컨디션 관리가 풀타임 결정
오승환·유규민·심창민 등 자원 충분
불펜 부활해야 왕조재건 한발짝 더

삼성 라이온즈는 2020시즌을 마친 뒤 바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연속(2016~2020시즌)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하며 구진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력보강에 열을 올렸다. 프리에이전트(FA) 영입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전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먼저 두산 베어스에서 FA가 된 오재일을 4년 최대 50억 원에 잡았다. 타선의 좌우 밸런스를 맞추고, 펜스거리가 짧은 홈구장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1루 수비도 한결 탄탄해졌다. 이어 내부 FA 내야수 이원석(2+1년 최대 20억 원), 우완 사이드암 투수 유규



취임 2년차를 맞은 허삼영 삼성 감독은 올 시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번 스토브리그 동안 손조롭게 전력을 보강한 만큼 기대가 크다. 원조 시절 삼성의 최대 강점이었던 불펜의 위력까지 되살릴 수 있다면 목표 달성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스포츠동아DB

민(1+1년 최대 10억 원)도 잔류시켰다. 박계범(두산)의 보상선수 이적과 권오준

의 은퇴를 고려해도 전력누수는 적다.

지난해 에이스 역할을 한 데이비드 뷰캐넌과 벤 라이블리, 새 외국인타자 호세 피렐라 등 외국인선수 3명과도 일찌감치 계약했다. 트레이드와 방출선수 영입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큰 틀에선 선수구성에 따른 고민은 줄었다. 온전히 2021시즌 구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일단 타선은 확실히 강화됐다. 박해민, 김상수가 테이블세터로 포진한다. 구자욱, 오재일, 김동엽, 피렐라, 강민호, 이원석은 어떤 타순에 들어가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2019시즌 주전 유격수를 맡았던 이학주가 살아나면 그야말로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이 완성된다. 선발진도 뷰캐넌과 라이블리가 중심을 잡고, 지난해 11승을 거둔 최재홍과 3년차 원대인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면 부담은 확 줄어든다.

관건은 불펜이다. 삼성 불펜은 지난해 6월까지 평균자책점(BERA) 2위(2.42)의 강력함을 자랑했지만, 7월 이후에는 ER

A 6.01로 무너졌다. 결국 시즌 불펜 BERA도 8위(5.47)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 시즌의 절반인 72경기에서 3점차 이내의 박빙승부를 펼친 탓에 불펜의 소모가 늘었고, 시즌을 치를수록 이에 따른 체력 부담도 커졌다. 삼성 허삼영 감독은 “불펜투수들의 체력 한계가 2~3주 정도 빨리 왔다”고 인정하며 컨디셔닝을 위한 훈련방법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풀타임을 완주하기 위해선 오프시즌부터 컨디션을 조절해 리듬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등판 간격이 일정치 않은 불펜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원은 충분하다. ‘끝판대장’ 오승환과 베테랑 유규민을 비롯해 심창민, 최지광, 김윤수, 임현준, 김대우 등 언제든지 출격 가능한 투수들이 버티고 있다. 잠시 부진했던 장필준도 부활 의지가 강하다. 2020시즌의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둔다면 왕조 시절 자랑했던 불펜 왕국을 구축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 2021시즌 삼성 불펜의 모습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강선 기자 posterboy@donga.com



키움은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로 떠난 김하성의 자리를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은 물론 외야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던 김혜성(사진)이 1순위 후보다. 스포츠동아DB

“빅리거 김하성처럼!”…‘포스트 김하성’ 김혜성에 거는 기대

올 시즌 한 포지션에 고정될 가능성
ML에 3명 보낸 키움 화수분 시스템
큰 동기부여 속 공격력 극대화 자신

2000년대 KBO리그의 화수분이 두산 베어스였다면 2010년대는 키움 히어로즈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동시다발적으로 에이스와 4번타자가 이탈해도, 팀의 처추가 빠져도 어떻게든 그 자리를 메우는 선수들이 나타났다.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이탈해도 키움이 마냥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김혜성(22)을 비롯한 ‘다음 세대’의 존재 때문이다.

키움은 KBO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 가장 적극적인 팀이다. 2015년 강정호(당시 피츠버그 파이어리

츠), 2016년 박병호(당시 미네소타 트윈스)에 이어 2021년 김하성까지 ‘수출’에 성공했다. 역대 KBO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으로 미국 메이저리그(ML)에 진출한 것은 키움 출신 3명에 2013년 류현진(당시 LA 다저스), 2020년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 총 5명이다. “한국인 메이저리거는 키움이 키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구단 전체가 오픈 마인드다. 2020시즌 도중 지휘봉을 잡은 김창현 감독대행은 김하성을 향한 미국 매체들의 보도가 연일 나오는 것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핵심선수가 미국에 가면 일반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한다. 팀의 전력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키움은 당장의 선수 이탈로 인한 마이너스보다 무형의 플러스 요소를 생각한다. 김 대행은 “2군에서 좋은 시스템 아래 준비하는 선수가 많다. 그들에게 당장 기회가 주어진다. 또 ‘우리 팀은 야구를 잘하면 ML 진출을 허용한다’는 동기부여까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이적료에 이 같은 무형의 가치가 더해지니 선수 영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 포스팅 시스템으로 떠난 선수가 복귀할 경우 4년간 보류권을 갖게 된다.

이 모든 장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결국 이탈한 선수의 대체재가 활약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다. 강정호의 자리를 김하성이 채웠듯, 김하성의 자리에는 김혜성이 1순위 후보로 꼽힌다. 김혜성은 지난해

142경기에서 타율 0.285, OPS(출루율+장타율) 0.744를 기록했다.

주목할 것은 수비 이닝이다. 김혜성은 2020시즌 2루수와 유격수, 좌익수를 고르게 맡았다. 2루수로 441.2이닝, 유격수로 322이닝, 3루수로 58이닝, 좌익수로 291.2이닝을 책임졌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2루수-유격수로는 자질을 인정받았지만 외야수는 처음이었다. 이리저리 오가면 서도 리그 평균 수준만큼의 타격 생산력은 보여줬으니, 한 자리에 고정된다면 이보다 더 순도 높은 공격력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처음부터 ML행이 예견되는 선수는 없다. 강정호도, 박병호도, 김하성도 그랬다. 김혜성 또한 동기부여를 현실로 만들 차례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美 언론 “메이저리그 4월 2일 개막…162경기 소화”

“새 시즌 정상적으로 열릴 것”

메이저리그 단축시즌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일까.

2021시즌 개막을 준비 중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팀당 162경기를 전부 소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4일(한국시간) 디에슬레틱의 보도를 인용해 “2021시즌은 정상적

으로 열릴 것”이라며 팀당 162경기 체제를 예상했다. 이 매체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는 각각 노사단체협약(CBA)을 준수하고, 스프링 캠프와 개막일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시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020시즌 메이저리그는 팀당 60경기 단축시즌으로 치러졌다. 선수들

의 연봉도 줄어든 경기수에 맞춰 감액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러나 올해는 정상적인 리그 운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구단주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개막 연기를 선호하고 있다. 또 무관중 경기도 줄이기를 원한다”고 우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프로풋볼(NFL)과 미국프로농구(NBA)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는 한 메이저리그도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2021시즌이 팀당 162경기 체제로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이 매체는 “완전한 시즌을 주장해온 선수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번 시즌도 이동 문제와 경기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4월 2일 개막해 팀당 162경기를 소화하는 일정표를 마련해둔 상태다. 이 일정대로라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스프링캠프는 2월에 시작된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